

추석 연휴 '24시간 종합대책반' 가동

인천시, 선별진료소 운영 응급의료 등 대응체계 갖춰

인천시가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9~12일 연휴기간 동안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시는 코로나19·물가안정·교통·성묘 대책·응급의료·급수 등 12개 분야의 세부대책을 수립하고 분야별 대책반 상황실을 운영해 24시간 시민의 생활안전을 책임진다.

특히 코로나19로 몇 년 동안 고향을 방문

하지 못한 많은 귀성객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을 위해 대중교통을 증편한다.

고속버스 12대와 시외버스 7대를 증차하고 여객선 운영을 70회로 늘려 32만 여명의 시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특별 교통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3년 만에 개방돼 추석명절 성묘객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인천 가족공원 부근은 추석 당일 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아침 8시~저녁 5시까지 2분 간격으로 무료 셔틀버스(부평삼거리역 2분 출구~가족공원)를 운행한다. 제일고등학교 운동장은 연휴기간 동안 임시주차장으로 개방해 주차난을 해소

한다.

또한 전통시장의 이용편의를 위해 1~12일까지 인천시 25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차장을 허용한다.

도로복구 상황실에서는 전통시장·백화점·가족공원·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과 대형공사장 주변을 순찰하고 땅 꺼짐 등 도로파손으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접수받고 처리한다.

인하대병원을 비롯한 19개의 응급의료기관은 연휴동안 24시간 비상 진료를 하며 밤 10~새벽 1시까지 공공심야약국 13개소를 운영한다.

연휴기간 운영되는 비상진료기관 및 휴일

지킴이 약국 운영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응급의료정보센터와 보건복지부, 인천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및 누수 등 생활민원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24시간 긴급복구반'이 상시 대기한다.

또한 시는 물가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생필품 등 주요품목의 수급상황과 가격동향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그 밖에 농산물도매시장 개장 일정, 문화행사 안내 등 연휴 기간 중 시민들이 알아두면 편리한 유용한 정보를 인천시 홈페이지와 120 미추홀콜센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안중삼 기자

안테나

중구의회, 중구 사회복지협의회 초청 간담회



중구의회가 중구 사회복지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중구의회 강후공 의장을 비롯해 제9대 중구의회 의원(정동준 부의장, 이종호 운영총무위원장, 한창한 도시정책위원장, 윤효호 의원, 김광호 의원, 손은비 의원)과 이계은 중구 사회복지협의회 회장과 더불어 협의회 회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 추진 사업 설명 및 협의회 소속 기관별 프로그램 진행 상황과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강후공 중구의회 의장은 "복지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어려움을 감소시키고 앞으로도 중구 복지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지방의회 차원에서 유기적이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안중삼 기자

인천시 '스마트 인천' 널리 홍보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참여 스마트기술 체험기회 등 제공

인천시와 인천경제청(IFEZ)은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3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2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WSCIE 2022)'에 참가해 인천의 우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육성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솔루션들을 적극 홍보했다.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는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매년 개최하는 아태지역 최대의 스마트도시 행사로 올해는 '모두가 연결되는 디지털 세상(Digital Earth, Connecting Together)'을 주제로 진행됐다.

개막식·세미나·비즈니스 매칭프로그램, 최신 기술 솔루션 전시체험 공간으로 구성된 엑스포에는 전 세계 스마트도시 분야의 정부·기업 전문가들이 모였다.

인천시와 IFEZ는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스마트 인천'을 주제로 △국가공모사업 Zone △스타트업 Zone △리빙랩 Zone △프리젠테이션 Zone으로 인천시 홍보관을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2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에 참가해 인천의 우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와 육성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솔루션들을 적극 홍보했다. (사진=인천시)

구성·운영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공모에 선정돼 실증 중인 실시간 수요응답형 버스 I-MOD를 호출하고 관제하는 시연을 비롯해 도심배송(라스트딜리버리) 실증에 투입될 자율주행 로보를 운행하는 등 인천시 홍보관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행사 첫째 날인 지난달 31일에는 한

덕수 국무총리,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 등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인천시 홍보관을 방문해 스마트 인천의 우수 솔루션들을 관람했으며 지난 1일에 열린 2022 WSCIE Awards 시상식에서는 '디지털 트윈 기반 화재대응 현장지휘 통합플랫폼 구축'과 IFEZ(송도, 영종, 청라)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으로 인천시와 IFEZ가 City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김지영 시 스마트도시담당관은 "인천시와 IFEZ가 스마트시티 우수 지자체에 주어지는 WSCIE Awards를 수상하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엑스포 참가를 통해 인천시의 다양한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전 세계에 홍보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인천시가 스마트시티 선도 도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중삼 기자

인천사서원, 선배 창업자 창업 비법 강연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는 선배 창업자에게 창업 성공 비법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

'와글와글 집담회-선배에게 길을 묻다' 세 번째 시간으로 준비한 이번 행사는 오는 14일 오후 2시 강삼순(썬비이 오소프트 대표)가 '선배'로 나서어쩌다 창업-확신은 준비된 전략과 타이밍을 먹고 자란다'를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선택의 기로에 서다' '말랑말랑한 성찰과 전략' '행동은 과감하고 올곧게' 등 흥미로운 소재로 이야기를 풀어간다.

참가 신청 기간은 이달 12일까지이며 대상은 인천시 50세 이상 예비노인, 노인세대다. 선착순으로 20명을 모집한다. 고령센터 대회의실에서 대면으로 열린다. 강연 참가비는 무료다.

신청 방법은 구글폼을 이용하려면 모집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한 뒤 링크에 접속하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http://bit.ly/와글와글집담회3차'를 입력한 뒤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또는 고령센터 홈페이지 내 즐거운인생-제2경계개발-선식자료실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고 이메일이나 팩스를 이용해 접수 가능하다.

안중삼 기자

인천시, 어린 꽃게 115만 마리 방류



인천시는 서해안 꽃게 자원 회복을 위해 2일 인천 강화 주문도해역에 지역 어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자체 생산한 어린 꽃게 115만 마리를 방류했다.

이번에 방류한 어린 꽃게는 용진군 영흥해역에서 어미 꽃게 확보 후, 관리해 지난달 초순에 부화한 것으로 병성감정실시기관의 전염병 검사를 통해 건강한 수산종자로 판정된 1cm 이상의 우양 수산종자다.

인천은 꽃게 서식·산란에 가장 적합한 환경으로 전국 꽃게 생산량의 38%를 차지하는 국내 제일의 꽃게 산지며 꽃게 자원량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방류사업이 필요하다. 인천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해역에 꽃게 3030만 마리를 생산해 방류했다.

안중삼 기자

인천시, 국민 안전교육 '우수기관' 선정

인천시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2년(2021년 실적) 국민 안전교육 실태점검 결과 17개 시·도 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교육 정책 추진상황의 평가·점검을 통해, 평가결과 인천시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지난해 인천시는 시민 안전교육을 위해 △안전역량 향상 TF 구성·운영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교육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 확대 △재난안전전시회 개최 등을 추진했다. 특히 어린이 안전교육 뮤지컬 공연(교통·기후) 및 OBS 재난안전 홍보 영상시리즈(8편) 제작 등 비대면 안전교육 온라인 콘텐츠를 확대하고 교육을 실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병근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취약계층 안전교육, 어린이 안전교육 등 생애주기별 6대 안전분야별 시민 안전 교육에 다양한 시책을 통해 시민을 위한 최상의 복지, 안전한 인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중삼 기자



인천시의회는 최근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 (사진=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본격 운영 돌입

인천시의회, 심사위원 위촉식 시의회 의원 등 9명 활동 시작

인천시의회는 최근 의장 접견실에서 허식 의장을 비롯해 의회운영위원회 한민수 위원장, 김대중·나상길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시의회 소속의

원 3명을 비롯해 언론인 출신의 이종진 경도신문 본부장, (사)인천섬유산업연구소 김기룡 이사장, 소상공인 양용규 바이크원 대표 등 총 9명이며 이들은 앞으로 2년간 심사위원으로 활동한다.

심사위원회에서는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의원연구단체의 연구 활동 계획 승인, 의원연구단체의 지원(연구 활동비 지원 등) 등에 관한 사항들을 심사하게 된다.

안중삼 기자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 일시 중단

인천시, 태풍 '힌남노' 영향 검사소 3곳 5일부터 7일까지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운영

인천시는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북상에 따라 5~7일까지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 3곳의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

태풍 '힌남노'는 돌풍·천둥·번개를 동반한 가운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돼 많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민간에 위탁해 운영 중인 인천시청 앞 광장(남동구) 송도 미추홀타워 앞(연수구) 부평역(부평구) 등 임시 선별검사소 3곳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상상황을 고려해 운영 중단 연장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10개 구·보건소가 운영 중인 선별진료소 11곳은 평소대로 정상 운영(운영시간: 평일 09:00~18:00, 주말·휴일 09:00~13:00)된다.

안중삼 기자

따라서 만 60세 이상 고령자, 코로나19 의심증상자(의사 소견,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밀접 접촉자·격리 해제 전 검사자·해외입국자),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고위험시설 근무자 등), 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등 유전자 증폭검사(PCR) 대상자는 증빙자료(의사 소견서, 격리 통지서, 고위험시설 재직증명서 등)를 지참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아울러 유전자 증폭검사(PCR) 대상자가 아닌 일반 시민들은 원스톱 진료기관 등 호흡기환자 진료센터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으면 된다.

김문수 시 감염병관리과장은 "태풍 북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을 부득이 일시 중단하기로 한 만큼 PCR 검사를 받을 분들은 불편하더라도 보건소나 민간 의료기관 선별진료소를 이용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중삼 기자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 개최

인천시, 남동체육관에서 15개 시·도 700여 명 참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팀을 이뤄 경기를 치르는 국내 최초의 어울림 축전이 인천에서 열렸다. 인천시는 3·4일 남동체육관, 문학주경기장, 인천장애인국민체육센터, 공촌유수지체육시설 파크골프장, 제이블링장에서 '제1회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이 개최된다. 15개 시·도 700여 명의 선수

가 참여해 생활체육을 즐기는 자리다.

어울림 축제의 인천 개최는 장애인 체육 발전에 대한 인천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앞서 유정복 시장은 지난 7월 취임과 동시에 시민 중에서는 가장 먼저 장애인 체육인들과의 소통의 시간을 가지며 '편견과 차별 없는 인천' 조성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은 남북(남자선수복식), 여복(여자선수복식), 혼복(혼성복식)과 같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팀을 이루는 복식경기로 스포츠를 통해 장애인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팀을 이뤄 경기를 치르는 국내 최초의 어울림 축전이 인천에서 열렸다. (사진=인천시)

기피 대상이 아닌 함께 즐길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기 위해 기획·추진됐다.

3일 남동경기장에서 진행된 개회식에서는 유정복 시장, 조용만 문화체육부 차관, 정

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이 동반 입장해 스포츠로 하나 되는 생활체육대축전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안중삼 기자